

## 비행청소년의 식생활태도와 식이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정숙 · 이현자 · 송병춘<sup>1)</sup> · 김은경<sup>1)</sup> · 이춘복<sup>2)</sup> · 김석환<sup>†</sup>

동아대학교 식품과학부, <sup>1)</sup>전국대학교 생활과학과, <sup>2)</sup>영산대학교 한국식품조리학과

### A Study on Dietary Attitudes and Dietary Self-Efficacy of Juvenile Delinquents

Jung-Suk Lee, Hyun-Ja Lee, Byeng-Chun Song<sup>1)</sup>, Eun-Kyung Kim<sup>1)</sup>, Chun-Bok Lee<sup>2)</sup>, Seok-Hwan Kim<sup>†</sup>

Department of Food Science,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sup>1)</sup>Department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 Konkuk University, Chungju, Korea

<sup>2)</sup>Department of Korean Food & Culinary Arts, Youngsan University, Busan,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dietary attitudes and dietary self-efficacy of juvenile delinquents. Out of 110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the juvenile detention home students in Daegu, and 150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the juvenile detention home students in Anyang, 210 were analyzed (80.7% analysis rate). These data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lmost all parents' educational levels showed 'graduation of middle school', and only 43.8% of the juvenile detention students were living with parents. In case of incoming status, average income per month was 2,000,000 won, which was lower than normal one. Diet attitude score was higher in boy students than girl students ( $p < 0.05$ ). There was a higher score of diet attitude in higher educational levels of father. The average score of dietary self-efficacy was  $2.51 \pm 0.86$ . This value was lower than the normal juvenile. There was a higher diet attitude score in the higher dietary self-efficacy score ( $p < 0.001$ ). Therefore, proper nutrition education is required to improve their dietary self-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ful data to plan and develop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s of juvenile delinquen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3(5) : 663~673, 2008)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ts · diet attitude · dietary self-efficacy · nutrition education

####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이 활발하고 성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각종 영양소의 요구량이 급증하는 시기이고,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야만 완전한 성장여건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영양 상태는 성인기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Spear 1996). 따라서 청소년기의 영양은 최대의 유전능력을 발휘하고 보완할 수 있는 영양 필요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도록 하여 성장과 성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 사회적 · 심리적 · 정서적 안정감을 기르고 건

강한 성인이 되도록 하는데 그 중요성이 크다. 만약 이 시기에 영양부족이나 심리적 불안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장과 성숙이 지연될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Choi & Park 2002).

또한 이 시기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식, 불균형식, 인스턴트식품의 선호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식행동이 나타나기 쉬운 때로(Jung & Choi 2003)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는 동시에 빈번한 패스트푸드 섭취, 고열량식품 섭취 및 운동부족으로 영양과잉을 초래하는 등의 양극화된 영양문제가 보고되고 있다(Lee 등 1990; Kwon 등 2002).

청소년들의 잘못된 식사 습관과 영양 상태를 수정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식행동의 이해가 필요하다. 식행동과 관련된 행위의 사회인지적 요소인 식이자기효능감은 비만에 대한 자기 조절행위 인자(Parcel 등 1995)와 건강습관을 갖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 성취된 성공습관을 유지하는 인자(Kang 2005)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식행동 연구에 있어, 식

접수일: 2008년 8월 26일 접수

채택일: 2008년 9월 29일 채택

<sup>†</sup>Corresponding author: Seok-Hwan Kim, Department of Food Science, Dong-A University, 840 Hadan2-dong, Saha-gu, Busan 604-714, Korea

Tel: (051) 200-7318, Fax: (051) 200-7535

E-mail: kimsh@donga.ac.kr

행동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식행동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비행이란 법률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도덕적, 관습적 규범으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의 행위를 의미하고, 비행청소년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사회적·심리적 손상을 입혀 사회적 통념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Lee 2007). 최근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함께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비행과 범죄는 식생활과 관계가 깊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비행과 범죄와 관련된 식이 증상으로는 저혈당증(Ferguson 등 1988; Gans 등 1990), 식품 알레르기(Rapoport 1986), 과잉행동증(Atkins 1988) 등이 있다. 또한 정제당류 및 탄산음료, 즉석간이 식품의 섭취가 많을수록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경향이 있으며 자연식품을 많이 사용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충동성과 공격성이 교정되었다(Gray 1987).

이와 같이 비행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성인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양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며, 영양적인 지원과 정책에 앞서 비행청소년의 식생활에 관한 이해와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영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비행청소년의 식생활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비행청소년을 위한 영양교육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대구시 소재의 소년원 남자원생 110명과 안양시 소재의 소년원 여자원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3월에 대상 소년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 내용과 주의 사항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수거된 260부의 자료 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50부를 제외하고 210부를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조사 내용 및 방법

대상자의 일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성별, 신장, 체중,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결합 상태, 가족의 월 평균 소득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식생활태도는 선행연구(Jung 2002; Kim 2007; Park 2007)를 기초로 하여 구성된 20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식사와 일상생활의 균형, 식생활 개선 의지, 식품의 바른 선택 의지, 건

강과 영양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식생활태도의 총점은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구하였고, 부정적 항목의 경우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총 100점 만점에 합계 점수는 매우 좋음군(총점  $\geq 85$ ), 좋음군( $70 \leq$  총점  $< 85$ ), 보통군( $55 \leq$  총점  $< 70$ ), 나쁨군(총점  $< 55$ )으로 나누었다. 식이자기효능감은 식사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서(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Choi(1998)가 CDSS(Child Dietary Self-Efficacy Scale)와 Eating Self-Efficacy Scale를 조사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총 18 문항으로 '전혀 자신없다' 1점, '자신없다' 2점, '자신있다' 3점, '아주 자신있다' 4점으로 하여 총점을 계산하였다. 총합계 점수는 매우 좋음군(총점  $\geq 61$ ), 좋음군( $43 \leq$  총점  $< 61$ ), 보통군( $32 \leq$  총점  $< 43$ ), 나쁨군(총점  $< 32$ )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항목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성별 간 경향을 파악하고, 변인간의 유의성과 상관성은 t-test,  $\chi^2$ -test, 상관관계 분석(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 결 과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소년원 원생의 연령은 13~21세로 연령의 폭이 넓었으며, 17세가 64명으로 30%를 차지하였다. 남자는 89명으로 42.4%, 여자는 121명으로 57.6%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연령은 41~50세가 아버지 72.9%, 어머니 73.8%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아버지가 대학교 졸업이상이 11.9%,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59.1%, 중학교 졸업인 경우가 18.6%였고, 어머니가 대학교 졸업이상이 6.7%,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58.6%, 중학교 졸업인 경우가 26.2%였다. 아버지의 학력이 어머니의 학력보다 높았으며,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 모두 대부분 중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졌다. 부모의 결합관계에서는 27.6%만이 결혼 관계에 있었으며, 이혼이 39.5%로 전체 비행청소년 부모의 결합관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Total (n = 210)		
Age	13	3 ( 1.4)	
	14	14 ( 6.7)	
	15	30 (14.3)	
	16	51 (24.3)	
	17	64 (30.5)	
	18	28 (13.3)	
	19	14 ( 6.7)	
	20	5 ( 2.4)	
	21	1 ( 0.5)	
	Gender	Male	89 (42.4)
		Female	121 (57.6)
Father's age (yrs)	≤ 40	22 (10.5)	
	41~50	153 (72.9)	
	51~60	34 (16.2)	
	≥ 61	1 ( 0.5)	
Mother's age (yrs)	≤ 40	47 (22.4)	
	41 - 50	155 (73.8)	
	51 - 60	8 ( 3.8)	
	≥ 61	- (-)	
Father's education status	≤ Elementary school	22 (10.5)	
	Middle school	39 (18.6)	
	High school	124 (59.1)	
	≥ University	25 (11.9)	
Mother's education status	≤ Elementary school	18 ( 8.6)	
	Middle school	55 (26.2)	
	High school	123 (58.6)	
	≥ University	14 ( 6.7)	
Marriage status of parents	Marriage	58 (27.6)	
	Remarriage	30 (14.3)	
	Divorce	83 (39.5)	
	Separation	21 (10.0)	
	Cohabitation	9 ( 4.3)	
	Bereavement	9 ( 4.3)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32 (15.2)	
	101~200	81 (38.6)	
	200~300	62 (29.5)	
	300~400	17 ( 8.1)	
	≥ 401	18 ( 8.6)	

N (%)

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53.8%였다.

## 2. 성별에 따른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는 Table 2와 같다. 평균 신장은 남녀 각각 172.20 cm, 160.89 cm였고 평균 체중은 남녀 각각 66.73 kg, 58.42 kg이었으며,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 kg/m<sup>2</sup>)는 남녀 각각 22.46 kg/m<sup>2</sup>, 22.54 kg/m<sup>2</sup>였다.

Table 2. Anthropometrics of subjects

	Male (N = 89)	Female (N = 121)	p-value
Height (cm)	172.20 ± 6.45 <sup>1)</sup>	160.89 ± 5.20	0.000
Weight (kg)	66.73 ± 9.78	58.42 ± 8.04	0.000
BMI (kg/m <sup>2</sup> )	22.46 ± 2.60	22.54 ± 2.81	0.822

1) Mean ± SD

## 3. 식생활태도 평가

식생활태도의 각 문항별 점수는 Table 3과 같다. 성별 식생활태도 점수를 살펴보면, 남자가 68.92점, 여자가 66.45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식생활태도 점수가 높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항목은 남녀 모두 ‘항상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다’에 남자 4.45점, 여자 4.14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점수는 남자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영양섭취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가 2.57점, 여자는 ‘식사 후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먹는다’가 2.36점으로 가장 낮았다. 남자와 여자의 식생활태도 점수 중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문항 중 남자가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은 문항은 ‘항상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다’( $p < 0.01$ ), ‘영양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으면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p < 0.001$ ),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p < 0.05$ ), ‘예전에 먹어 보지 않은 음식이라도 먹어 보려고 한다’( $p < 0.01$ ), ‘식사 후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먹는다’( $p < 0.01$ )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은 문항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영양섭취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p < 0.05$ )로 나타났다.

## 4.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과 가정환경에 따른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식습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체의 40.0%가 급식, 30.0%가 친구, 18.6%가 부모님, 9.5%가 TV, 1.9%가 선생님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님은 남자의 29.2%, 여자의 10.7%로 나타났으며 급식은 남자의 27.0%, 여자의 49.6%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남자는 여자보다 부모님에서 식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자는 남자보다 급식에서 식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급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각각 54.5%, 50.0%로 나타나 다른 학력에 비해 높았으며 급식이 부모의 결합 상태가 결혼일 때 29.3%로 다른 부모의 결합 형태(33.7~56.7%)보다 낮았

Table 3. Dietary attitude of subjects

Variables	Male (n = 89)	Female (n = 121)	Total (n = 210)	t-test
1. It is good to eat all nutrition for health.	4.45 ± 0.72 <sup>1)</sup>	4.14 ± 0.71	4.27 ± 0.73	3.090 <sup>**2)</sup>
2. Try to practice as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nutrition	3.40 ± 0.94	2.88 ± 0.99	3.10 ± 1.00	3.859 <sup>***</sup>
3. It is good overeating for proper nutrition intake.	2.57 ± 1.05	2.92 ± 1.05	2.77 ± 1.07	2.340 <sup>*</sup>
4. Try to confirm expiration date and nutrition facts, when food select.	4.03 ± 0.96	3.92 ± 0.94	3.97 ± 0.95	0.881
5. Try to have every meal at regular time.	3.13 ± 1.16	3.09 ± 1.13	3.11 ± 1.14	0.275
6. It is better to exercise than dietary control for weight control.	3.76 ± 1.08	3.51 ± 1.10	3.62 ± 1.10	1.649
7. Vitamin is perfect nutrition, so only-vitamin dietary is good.	3.71 ± 0.98	3.64 ± 1.14	3.67 ± 1.07	0.421
8. It is good to eat milk and some fruits for between meals.	3.83 ± 1.01	3.87 ± 1.13	3.85 ± 1.08	0.240
9. It is bad to eat instant food regularly.	3.65 ± 1.15	3.30 ± 1.15	3.45 ± 1.16	2.204 <sup>*</sup>
10. It is important to eat vegetable regularly.	3.90 ± 1.00	3.93 ± 0.96	3.92 ± 0.97	0.114
11. Try to make right the inappropriate dietary habit.	3.54 ± 1.06	3.27 ± 1.07	3.39 ± 1.07	1.792
12. Try not to eat too salty and hot food.	3.20 ± 1.03	3.12 ± 1.22	3.18 ± 1.14	0.842
13. It can supplement the meal I skipped to eat more food.	3.03 ± 1.16	3.20 ± 1.12	3.13 ± 1.14	1.038
14. Try to eat new foods that I've never eaten before.	3.90 ± 0.94	3.50 ± 1.03	3.67 ± 1.01	2.852 <sup>**</sup>
15. Food that I eat now will be able to affect my health.	3.67 ± 1.03	3.41 ± 0.91	3.52 ± 0.97	1.940
16. Try no to eat any food before I go to sleep.	3.15 ± 1.23	2.91 ± 1.18	3.01 ± 1.20	1.415
17. Try not to eat any carbonated beverage drink such as coke and soda.	2.81 ± 1.20	3.02 ± 1.19	2.93 ± 1.20	1.294
18. Try to eat food slowly not fast.	3.01 ± 1.09	3.02 ± 1.20	3.02 ± 1.15	0.084
19. Even though I am full, I usually eat another food except meals.	2.80 ± 1.11	2.36 ± 1.10	2.55 ± 1.20	2.822 <sup>**</sup>
20. I always appreciate whenever I eat food.	3.29 ± 1.09	3.41 ± 0.98	3.36 ± 1.03	0.844
Total dietary attitude	68.92 ± 8.78	66.45 ± 8.92	67.50 ± 8.92	2.001 <sup>*</sup>

1) Mean ± SD

2) \*\*\*: p &lt; 0.001, \*\*: p &lt; 0.01, \*: p &lt; 0.05

Table 4. Dietary attitude as related factor of subjects

		Parents	Teacher	School meal	TV	Friend	$\chi^2$
Sex	Male	26 (29.2) <sup>1)</sup>	2 (2.2)	24 (27.0)	10 (11.2)	27 (30.4)	16.556 <sup>**2)</sup>
	Female	13 (10.7)	2 (1.7)	60 (49.6)	10 ( 8.3)	36 (29.8)	
Father's education status	≤ Elementary school	3 (13.6)	1 (4.5)	12 (54.5)	2 ( 9.1)	4 (18.2)	12.187
	Middle school	10 (25.6)	1 (2.6)	11 (28.2)	4 (10.3)	13 (33.3)	
	High school	20 (16.3)	1 (0.8)	49 (39.8)	11 ( 8.9)	42 (34.1)	
	≥ University	6 (24.0)	1 (4.0)	11 (44.0)	3 (12.0)	4 (16.0)	
Mother's education status	≤ Elementary school	1 ( 5.6)	- (-)	9 (50.0)	3 (16.7)	5 (27.8)	7.669
	Middle school	12 (21.8)	2 (3.6)	22 (40.0)	2 ( 3.6)	17 (30.9)	
	High school	23 (18.7)	2 (1.6)	47 (38.2)	14 (11.4)	37 (30.1)	
	≥ University	3 (21.4)	- (-)	6 (42.9)	1 (7.1)	4 (28.6)	
Marriage status of parents	Marriage	12 (20.7)	2 (3.4)	17 (29.3)	8 (13.8)	19 (32.8)	20.793
	Remarriage	4 (13.3)	- (-)	17 (56.7)	4 (13.3)	5 (16.7)	
	Divorce	18 (21.7)	2 (2.4)	28 (33.7)	8 ( 9.6)	27 (32.5)	
	Separation	1 ( 4.8)	- (-)	13 (61.9)	- (-)	7 (33.3)	
	Cohabitation	2 (22.2)	- (-)	4 (44.4)	- (-)	3 (33.3)	
	Bereavement	2 (22.2)	- (-)	5 (55.6)	- (-)	2 (22.2)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5 (15.6)	1 (3.1)	18 (56.3)	3 ( 9.4)	5 (15.6)	11.811
	101 - 200	16 (20.0)	1 (1.3)	31 (38.8)	6 ( 7.5)	26 (32.5)	
	201 - 300	12 (19.4)	1 (1.6)	22 (35.5)	6 ( 9.7)	21 (33.9)	
	301 - 400	2 (11.8)	- (-)	7 (41.2)	3 (17.6)	5 (29.4)	
	≥ 400	4 (22.2)	1 (5.6)	5 (27.8)	2 (11.1)	6 (33.3)	
Total		39 (18.6)	4 (1.9)	84 (40.0)	20 ( 9.5)	63 (30.0)	

1) N (%)

2) \*\*: p &lt; 0.01

다. 또한 가족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에서 급식이 56.3%로 나타났다.

**5. 식습관 문제점**

성별과 가정환경에 따른 식습관 문제점은 Table 5와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폭식이 27.1%로 가장 그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이 편식이 21.9%, 자극적인 음식 선호가 14.8%, 식사시간 불규칙이 13.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식습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남자는 식사시간의 불규칙이 21.3%, 편식 19.1%, 결식 15.7%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폭식이 37.2%, 편식 24.0%, 자극적인 음식 선호 15.7%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식습관의 문제점은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p < 0.001). 부모의 결합 상태에 따른 식습관의 문제점은 통계적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편식은 결혼관계에 있을 때 13.8%로 다른 부모의 결합 상태(14.3~33.3%)보다 그 비율이 낮았다. 폭식도 부모가 결혼관계에 있을 때 19.0%로 다른 부모의 결합 상태(23.3~33.3%)보다 그 비율이 낮았다(p = 0.086). 가족의 평균 소득에 따른 식습관의 문제점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가족의 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편식의 비율이 높았고 가족의 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인스턴트식품 자주 섭취의 문제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6. 식사의 목적**

성별과 가정환경에 따른 식사의 목적은 Table 6과 같다. 식사의 목적은 ‘배고픔의 해결’이 3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유지’가 25.4%, ‘좋아하는 것을 먹는다’가 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고픔의 해결’은 남자가 37.1%, 여자가 38.8%,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유지’는 남자가 34.8%, 여자가 18.2%, ‘좋아하는 것을 먹는다’는 남자가 18.0%, 여자가 24.0%로 나타나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유지’에 식사의 목적을 두는 비율이 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p < 0.05).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식사의 목적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식사의 목적이 ‘배고픔의 해결’과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유지’의 비율이 높아지고 학력이 낮을수록 ‘좋아하는 것을 먹는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모의 결합 상태에 따른 식사의 목적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부모가 결혼

Table 5. Dietary problem as related sex and family environment

Dietary problem		Unbalanced diet	Skipping meals	Eating more snacks than regular meal	Binge eating	Eating too spicy food	Irregular meal time	Eating instant food regularly	$\chi^2$
Sex	Male	17 (19.1) <sup>1)</sup>	14 (15.7)	7 ( 7.9)	12 (13.5)	12 (13.5)	19 (21.3)	8 ( 9.0)	26.470*** <sup>2)</sup>
	Female	29 (24.0)	6 ( 5.0)	6 ( 5.0)	45 (37.2)	19 (15.7)	9 ( 7.4)	7 ( 5.8)	
Father's education status	≤ Elementary school	7 (31.8)	5 (12.8)	1 ( 4.5)	6 (27.3)	5 (22.7)	2 ( 9.1)	— (—)	14.003
	Middled school	9 (23.1)	13 (10.6)	2 ( 5.1)	13 (33.3)	4 (10.3)	3 ( 7.7)	3 ( 7.7)	
	High school	25 (20.3)	1 ( 4.0)	7 ( 5.7)	32 (26.0)	18 (14.6)	18 (14.6)	10 ( 8.1)	
	≥ University	5 (20.0)	— (—)	3 (12.0)	5 (20.0)	4 (16.0)	5 (20.0)	2 ( 8.0)	
Mother's education status	≤ Elementary school	2 (11.1)	8 (14.5)	1 ( 5.6)	7 (38.9)	5 (27.8)	2 (11.1)	1 ( 5.6)	32.528*
	Middled school	17 (30.9)	11 ( 8.9)	1 ( 1.8)	19 (34.5)	5 ( 9.1)	2 ( 3.6)	3 ( 5.5)	
	High school	26 (21.1)	1 ( 7.1)	11 ( 8.9)	29 (23.6)	19 (15.4)	19 (15.4)	8 ( 6.5)	
	≥ University	1 ( 7.1)	4 ( 6.9)	— (—)	2 (14.3)	2 (14.3)	5 (35.7)	3 (21.4)	
Marriage status of parents	Marriage	8 (13.8)	5 (16.7)	5 ( 8.6)	11 (19.0)	13 (22.4)	10 (17.2)	7 (12.1)	41.057
	Remarriage	10 (33.3)	7 ( 8.4)	1 ( 3.3)	7 (23.3)	3 (10.0)	2 ( 6.7)	2 ( 6.7)	
	Divorce	20 (24.1)	3 (14.3)	1 ( 1.2)	25 (30.1)	13 (15.7)	13 (15.7)	4 ( 4.8)	
	Separation	3 (14.3)	1 (11.1)	4 (19.0)	9 (42.9)	— (—)	1 ( 4.8)	1 (11.1)	
	Cohabitation	2 (22.2)	— (—)	— (—)	2 (22.2)	1 (11.1)	2 (22.2)	1 (11.1)	
	Bereavement	3 (33.3)	2 (22.2)	2 (22.2)	3 (33.3)	1 (11.1)	— (—)	— (—)	
	—	—	—	—	—	—	—	—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10 (31.3)	4 (12.5)	1 ( 3.1)	7 (21.9)	6 (18.8)	3 ( 9.4)	1 ( 3.1)	30.104
	101 - 200	20 (25.0)	5 ( 6.3)	3 ( 3.8)	25 (31.3)	13 (16.3)	10 (12.5)	4 ( 5.0)	
	201 - 300	12 (19.4)	8 (12.9)	5 ( 8.1)	17 (27.4)	7 (11.3)	9 (14.5)	4 ( 6.5)	
	301 - 400	2 (11.8)	1 ( 5.9)	3 (17.6)	5 (29.4)	3 (17.6)	1 ( 5.9)	2 (11.8)	
	≥ 400	2 (11.1)	2 (11.1)	1 ( 5.6)	3 (16.7)	2 (11.1)	4 (22.2)	4 (22.2)	
Total		46 (21.9)	20 ( 9.5)	13 ( 6.2)	57 (27.1)	31 (14.8)	28 (13.3)	15 ( 7.1)	

1) N (%)

2) \*\*\*: p < 0.001, \*: p < 0.05

Table 6. Dietary object as related sex and family environment

Dietary object		For stopping starvation	For good health	Eating food that I like	Eating food simply	Eating food by habit	$\chi^2$
Sex	Male	33 (37.1) <sup>1)</sup>	31 (34.8)	16 (18.0)	4 ( 4.5)	4 ( 4.5)	11.606 <sup>*2)</sup>
	Female	47 (38.8)	22 (18.2)	29 (24.0)	9 ( 7.4)	14 (11.6)	
Father's education status	≤Elementary school	7 (31.8)	4 (18.2)	8 (36.4)	1 ( 4.5)	2 ( 9.1)	10.428
	Middled school	13 (33.3)	11 (28.2)	9 (23.1)	2 ( 5.1)	4 (10.3)	
	High school	48 (39.0)	30 (24.4)	26 (21.1)	8 ( 6.5)	11 ( 8.9)	
	≥University	11 (44.0)	9 (36.0)	2 ( 8.0)	2 ( 8.0)	1 ( 4.0)	
Mother's education status	≤Elementary school	7 (38.9)	4 (22.2)	3 (16.7)	1 ( 5.6)	3 (16.7)	23.962
	Middled school	18 (32.7)	19 (34.5)	9 (16.4)	4 ( 7.3)	5 ( 9.1)	
	High school	49 (39.8)	25 (20.3)	31 (25.2)	8 ( 6.5)	10 ( 8.1)	
	≥University	6 (42.9)	6 (42.8)	2 (14.3)	- (-)	- (-)	
Marriage status of parents	Marriage	22 (37.9)	21 (37.9)	9 (15.5)	2 ( 3.4)	3 ( 5.2)	39.453 <sup>*</sup>
	Remarriage	11 (36.7)	6 (20.0)	6 (20.0)	3 (10.0)	4 (13.3)	
	Divorce	30 (36.1)	23 (27.7)	19 (22.9)	7 ( 8.4)	4 ( 4.8)	
	Separation	10 (47.6)	1 ( 4.8)	3 (14.3)	1 ( 4.8)	6 (28.6)	
	Cohabitation	4 (44.4)	2 (22.2)	2 (22.2)	- (-)	1 (11.1)	
	Bereavement	3 (33.3)	- (-)	6 (66.7)	- (-)	- (-)	
	Total		80 (38.1)	54 (25.4)	45 (21.4)	13 ( 6.2)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8 (25.0)	7 (21.9)	10 (31.3)	3 ( 9.4)	4 (12.5)	30.351
	101 - 200	28 (35.0)	20 (25.1)	17 (21.3)	7 ( 8.8)	8 (10.0)	
	201 - 300	31 (50.0)	16 (25.8)	12 (19.4)	2 ( 3.2)	1 ( 1.6)	
	301 - 400	9 (52.9)	3 (17.6)	1 ( 5.9)	- (-)	4 (23.5)	
	≥400	4 (22.2)	8 (44.4)	4 (22.2)	1 ( 5.6)	1 ( 5.6)	

1) N (%)

2) \*: p &lt; 0.05

관계에 있을 때 식사의 목적이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유지'가 37.9%로 부모의 다른 결합 상태(4.8~27.7%)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 7. 식사 시 중요도

성별과 가정환경에 따른 식사 시 중요도는 Table 7과 같다. 식사 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음식의 맛'이 53.8%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영양가'가 21.4%, '위생적인 면' 16.7%로 순으로 높았다. '음식의 맛'은 남자가 48.3%, 여자가 57.9%, '영양가'는 남자가 28.1%, 여자가 16.5%, '위생적인 면'은 남자가 13.5%, 여자가 19.0%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음식의 맛'과 '위생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영양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가정환경에 따른 식사 시 중요도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식사 시 '음식 맛'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식사 시 '영양가'와 '신선도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영양가'가 식사 시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

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낮은 학력에서 66.7%가 식사 시 '음식의 맛'이 중요하다고 답하였고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에서 35.7%가 '음식의 맛'이 식사 시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부모의 결합 상태가 결혼 관계에 있을 때 식사 시 '영양가'가 식사 시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29.3%로 가장 높아 다른 부모 결합 상태(6.7~22.2%)에 비해 높았다.

### 8. 식이자기효능감

성별에 따른 식이자기효능감은 Table 8과 같다. 식이자기효능감은 각 문항별 4점 만점에 평균 2.51 ± 0.86점으로 나타났다. 성별 식이자기효능감 중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을 살펴보면, '음식에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고 싱겁게 먹을 자신이 있나요?'가 남자가 2.22 ± 0.75점으로 여자의 2.01 ± 0.76점보다 유의하게 (p < 0.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식사 후에 간식을 먹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의 항목도 남자가 2.36 ± 0.83점으로 여자의 2.88 ± 0.87점보다 유의적으로 (p < 0.05) 높게 나타났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식이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으며 유

Table 7. Dietary point as related sex and family environment

Dietary point		Taste	Nutrition	Sanitation	Shape and color	Freshness	Etc.	$\chi^2$
Sex	Male	43 (48.3) <sup>1)</sup>	25 (28.1)	12 (13.5)	1 (1.1)	46 (6.7)	2 (2.2)	6.471
	Female	70 (57.9)	20 (16.5)	23 (19.0)	2 (1.7)	4 (3.3)	2 (1.7)	
Father's education status	≤ Elementary school	13 (59.1)	2 (9.1)	6 (27.3)	- (-)	- (-)	1 (4.5)	16.909
	Middled school	22 (56.4)	9 (23.1)	4 (10.3)	1 (2.6)	1 (2.6)	2 (5.1)	
	High school	65 (52.8)	28 (22.8)	20 (16.3)	2 (1.6)	7 (5.7)	1 (0.8)	
	≥ University	13 (52.0)	6 (24.0)	4 (16.0)	- (-)	2 (8.0)	- (-)	
Mother's education status	≤ Elementary school	12 (66.7)	3 (16.7)	2 (11.1)	1 (5.6)	- (-)	- (-)	16.210
	Middled school	29 (52.7)	10 (18.2)	11 (20.0)	1 (1.8)	1 (1.8)	3 (5.5)	
	High school	67 (54.5)	26 (21.1)	20 (16.3)	1 (0.8)	8 (6.5)	1 (0.8)	
	≥ University	5 (35.7)	6 (42.9)	2 (14.3)	- (-)	1 (7.1)	- (-)	
Marriage status of parents	Marriage	30 (51.7)	17 (29.3)	8 (13.8)	1 (1.7)	2 (3.4)	- (-)	22.321
	Remarriage	20 (66.7)	2 (6.7)	6 (20.0)	- (-)	1 (3.3)	1 (3.3)	
	Divorce	40 (48.2)	21 (25.3)	15 (18.1)	2 (2.4)	3 (3.6)	2 (2.4)	
	Separation	13 (61.9)	3 (14.3)	3 (14.3)	- (-)	1 (4.8)	1 (4.8)	
	Cohabitation	4 (44.4)	2 (22.2)	2 (22.2)	- (-)	1 (11.1)	- (-)	
	Bereavement	6 (66.7)	- (-)	1 (11.1)	- (-)	2 (22.2)	- (-)	
	Total	113 (53.8)	45 (21.4)	35 (16.7)	3 (1.4)	10 (4.80)	4 (1.9)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16 (50.0)	5 (15.6)	8 (25.0)	- (-)	2 (6.3)	1 (3.1)	24.866
	101 - 200	42 (52.5)	21 (26.3)	10 (12.5)	2 (2.5)	2 (2.5)	3 (3.8)	
	201 - 300	36 (58.1)	9 (14.5)	12 (19.4)	- (-)	5 (8.1)	- (-)	
	301 - 400	12 (70.6)	3 (17.6)	1 (5.9)	- (-)	1 (5.9)	- (-)	
	≥ 400	7 (38.9)	6 (33.3)	4 (22.2)	1 (5.6)	- (-)	- (-)	

1) N (%)

Table 8. Dietary self-efficacy as related sex

Questions	Male	Female	Total	t-test	(p-value)
1. Can you have 3 meals a day at the regular time?	2.53 ± 0.79 <sup>1)</sup>	2.50 ± 0.79	2.51 ± 0.78	0.218	(0.827)
2. Can you have a meal in a same speed with other?	2.62 ± 0.72	2.69 ± 0.74	2.66 ± 0.73	0.666	(0.506)
3. Can you have proper quantity, not much?	2.65 ± 0.76	2.64 ± 0.74	2.64 ± 0.75	0.147	(0.883)
4. Can you have meals not properly salted?	2.22 ± 0.75	2.01 ± 0.76	2.10 ± 0.76	2.054	(0.041)* <sup>2)</sup>
5. Can you bear attraction of snacks after dinner?	2.36 ± 0.83	2.12 ± 0.87	2.22 ± 0.86	1.976	(0.049)*
6. Can you choose steamed food, instead of fry or girdle?	2.67 ± 0.74	2.51 ± 0.83	2.58 ± 0.78	1.466	(0.144)
7. Can you choose fruits, instead of snacks or candies?	3.07 ± 0.81	2.88 ± 0.87	2.96 ± 0.85	1.555	(0.122)
8. Can you choose low-fat, low-calorie and low-salt foods for health?	2.90 ± 0.71	2.83 ± 0.74	2.80 ± 0.73	1.689	(0.093)
9. Can you choose fruit juices or water, instead of carbonated beverage?	2.84 ± 0.89	2.87 ± 0.93	2.86 ± 0.91	0.196	(0.844)
10. Can you eat nothing during watching TV or reading a book?	2.42 ± 0.91	2.39 ± 0.92	2.40 ± 0.91	0.214	(0.831)
11. Can you reject the offered delicious foods though high-calorie?	2.26 ± 0.81	2.14 ± 0.78	2.19 ± 0.79	1.070	(0.286)
12. Can you bear to eat when delicious food though high-calorie are in front of you?	2.28 ± 0.81	2.17 ± 0.79	2.22 ± 0.80	0.960	(0.338)
13. Can you bear to eat before going to sleep?	2.76 ± 0.87	2.56 ± 0.87	2.65 ± 0.87	1.672	(0.096)
14. Can you bear not to eat much at a birthday party or festival days?	2.12 ± 0.84	2.22 ± 0.77	2.18 ± 0.80	0.893	(0.373)
15. Can you bear to eat when you are bored?	2.51 ± 0.78	2.42 ± 0.84	2.46 ± 0.83	0.697	(0.487)
16. Can you bear to eat when you are angry?	2.83 ± 0.88	2.69 ± 0.88	2.75 ± 0.88	1.186	(0.237)
17. Can you bear to eat when you are uneasy or under stress?	2.80 ± 0.88	2.77 ± 0.79	2.78 ± 0.83	0.251	(0.802)
18. Can you bear to eat when you are gloomy?	2.88 ± 0.89	2.70 ± 0.89	2.78 ± 0.89	1.399	(0.163)
Average	2.60 ± 0.81	2.50 ± 0.82	2.51 ± 0.86	1.618	(0.107)
Total score	46.72 ± 6.92	45.00 ± 8.51	45.73 ± 7.91	1.562	(0.120)

1) Mean ± SD

2) \*: p &lt; 0.05

의적인 차이는 없으나 여자가 ‘음식을 천천히 먹을 자신이 있나요?’, ‘청량음료 대신 과일쥬스나 물을 선택할 자신이 있나요?’, ‘친구생일 잔치나 명절에 음식을 많이 먹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의 세 항목에서 남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남자의 경우 항목별 식이자기효능감 중 ‘간식으로 사탕, 과자 대신 신선한 과일을 먹을 자신이 있나요?’가 3.07 ± 0.81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생일 잔치나 명절이나 음식을 많이 먹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가 2.12 ± 0.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도 ‘간식으로 사탕, 과자 대신 신선한 과일을 먹을 자신이 있나요?’가 2.88 ± 0.87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녁식사 후에 간식을 먹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가 2.12 ± 0.8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 총 식이자기효능감의 점수는 남자가 46.72 ± 6.92점, 여자가 45.00 ± 8.51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자가 여자보다 식이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 9. 관련요인에 따른 식이자기효능감 점수구분

식이자기효능감에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인에 따른 식이자기효능감의 점수 구분은 Table 9와 같다. 성별에 따른 식이자기효능감 점수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점

Table 9. Dietary self-efficacy as related various factor

		Bad	Normal	Good	Very good	$\chi^2$
Sex	Male	1 (1.1) <sup>1)</sup>	24 (27.0)	63 (70.8)	1 ( 1.1)	5.812
	Female	6 (5.0)	42 (34.7)	69 (57.0)	4 ( 3.3)	
Obesity	Underweight	- (-)	5 (55.6)	4 (44.4)	- (-)	5.507
	Ordinary	3 (2.6)	37 (32.5)	71 (62.3)	3 ( 2.6)	
	Overweight	3 (5.9)	16 (31.4)	31 (60.8)	1 ( 2.0)	
Nutrition Knowledge	Obesity	1 (2.8)	8 (22.2)	26 (72.2)	1 ( 2.8)	28.344** <sup>2)</sup>
	Bad	2 (3.0)	30 (44.8)	35 (52.2)	- (-)	
	Normal	2 (2.5)	21 (26.6)	56 (70.9)	- (-)	
	Good	3 (5.5)	13 (23.6)	34 (61.8)	5 ( 9.1)	
Dietary attitude	Very good	- (-)	7 (50.0)	7 (50.0)	- (-)	46.231***
	Bad	2 (14.2)	7 (50.0)	5 (35.7)	- (-)	
	Normal	5 (4.5)	45 (40.5)	61 (55.0)	- (-)	
	Good	- (-)	14 (18.2)	60 (77.9)	3 ( 3.9)	
Father's education status	Very good	- (-)	- (-)	6 (75.0)	2 (25.0)	9.370
	≤ Elementary school	- (-)	8 (36.4)	14 (63.6)	- (-)	
	Middled school	- (-)	12 (30.8)	27 (69.2)	- (-)	
	High school	6 (4.9)	40 (32.5)	74 (60.2)	3 ( 2.4)	
Mother's education status	≥ University	1 (4.0)	6 (24.0)	16 (64.0)	2 ( 8.0)	7.923
	≤ Elementary school	1 (5.6)	8 (44.4)	9 (50.0)	- (-)	
	Middled school	1 (1.8)	14 (25.5)	40 (72.7)	- (-)	
	High school	5 (4.1)	40 (32.5)	74 (60.2)	4 ( 3.3)	
Marriage status of parents	≥ University	- (-)	4 (28.6)	9 (64.3)	1 ( 7.1)	24.579
	Marriage	4 (6.9)	14 (24.1)	38 (65.5)	2 ( 3.4)	
	Remarriage	- (-)	12 (40.0)	18 (60.0)	- (-)	
	Divorce	3 (3.6)	26 (31.3)	53 (63.9)	1 ( 1.2)	
	Separation	- (-)	8 (38.1)	13 (61.9)	- (-)	
	Cohabitation	- (-)	2 (22.2)	5 (55.6)	2 (22.2)	
	Bereavement	- (-)	4 (44.4)	5 (55.6)	- (-)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2 (6.3)	12 (37.5)	18 (56.3)	- (-)	12.206
	101 - 200	3 (3.8)	22 (27.5)	54 (67.5)	1 ( 1.3)	
	201 - 300	1 (1.6)	17 (27.4)	41 (66.1)	3 ( 4.8)	
	301 - 400	- (-)	8 (47.1)	8 (47.1)	1 ( 5.9)	
	≥ 400	1 (5.6)	6 (33.3)	1 (61.1)	- (-)	
Total	7 (3.3)	66 (31.4)	132 (62.9)	5 ( 2.4)		

1) N (%)

2) \*\*\*: p < 0.001, \*\*: p < 0.01



수가 '보통'이 남자가 27.0%, 여자가 34.7%였으며 ' 좋음'은 남자가 70.8%, 여자가 57.0%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식이자기효능감의 점수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며 비만에서 ' 좋음' 점수가 72.6%로 그 비율이 높았다. 영양지식 점수 수준에 따른 식이자기효능감 점수 수준을 살펴보면 영양지식 점수가 '매우 좋음'에서 식이자기효능감 점수가 '나쁨'이 없었으며 영양지식 점수가 '나쁨'과 '보통'에서 식이자기효능감 점수가 '매우 좋음'이 없었다( $p < 0.01$ ). 식생활태도 점수가 '나쁨'일 때 식이자기효능감 점수가 '매우 좋음'은 없었으며 식생활태도 점수 ' 좋음'과 '매우 좋음'에서는 식이자기효능감 점수가 '나쁨'이 없었다. 식생활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식이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나 점수 수준별로 높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1$ ). 부모의 학력에 따른 식이자기효능감 점수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중학교 졸업이상의 저학력에서는 식이자기효능감 점수가 ' 좋음'이 없었으며 어머니 학력이 대학교 졸업이상에서는 식이자기효능감 점수가 '나쁨'이 없었다. 부모의 결합 상태와 가정 평균 소득에 따른 식이자기효능감 점수 수준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부모가 결혼 상태일 때 식이자기효능감 점수 ' 좋음'이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고 찰

본 연구의 식생활태도 문항의 점수를 선행 다른 연구의 문항 점수와 비교해 볼 때, '매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먹으려고 한다'는  $3.11 \pm 1.14$ 점으로 Park 등(2003)연구의 유사 문항으로 '하루 세끼의 식사를 하십니까?'에서 보호관찰소 비행청소년이 2.85점, 일반청소년이 3.91점으로 나타나 소년원 비행청소년이 보호관찰소 비행청소년보다 높았고 일반청소년보다 많이 낮았다.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먹으려고 한다'는  $3.02 \pm 1.15$ 점으로 Park 등(2003)의 유사 문항으로 '여유있게 천천히 식사를 합니까?'는 보호관찰소 비행청소년은 2.97점 일반청소년은 3.35점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식생활태도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식생활태도 점수가 '나쁨'의 비율이 낮아졌고 식생활태도 점수가 '매우 좋음'의 비율은 높아졌다. Jung(2002)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식생활태도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식생활태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식생활태도는 Kim & Mo(1976)연구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식생활태도도 높다고 조사되었지만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가정환경에 따른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모의 학력이 낮고 가족 평균 소득이 낮으며 부모의 결합 상태가 결혼이 아닐 때 급식이 식습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행 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보다 결식률이 높아(Park 2000)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점심 급식이 식습관에 큰 영향을 주며 급식이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사라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07)의 연구에서도 급식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로 인식하는 점수가 5점 만점에 초등학교 3.96점, 중학교 3.97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경제적이고 건강에 좋다'는 점수도 높은 것으로 보아,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급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활의 문제점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Seong & Kim(1999)의 연구에서는 불규칙한 식사시간이 가장 높았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Ahn & Bai(2004)의 연구에서는 폭식이 2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본 연구의 비행청소년 여자의 37.2%보다 낮았다. 여자가 남자보다 폭식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다이어트로 식량을 줄이거나 굶음으로써 식욕을 억제하다가 폭식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Lee(2001)의 연구에서 폭식은 부정적인 정서와 충동성은 관련성이 있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되어 비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식습관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편식과 결식의 비율은 낮아지고 식사보다 많은 간식섭취, 불규칙적인 식사시간, 인스턴트 식품섭취의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식습관의 문제점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p < 0.05$ ),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식, 폭식의 비율은 낮아지고 식사보다 많은 간식섭취, 불규칙적인 식사시간, 인스턴트식품 자주 섭취의 문제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식습관의 문제점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Kim(2007)의 연구에서 식사의 목적을 초등학교는 영양소의 섭취(32.4%), 배고픔의 해결(32.4%), 식사 자체가 즐겁다(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는 배고픔의 해결(58.5%), 영양소의 섭취(25.1%), 식사자체가 즐겁다(9.7%)의 순으로 나타나 배고픔의 해결(38.1%),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유지(25.4%)의 순으로 나타난 본 연구와 비슷한 순위를 나타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Kim(2007)의 연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음식 선택 시 위생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이 초등학생은 영양과 건강, 맛의 순이었고 중학생은 음식의 맛, 영양과 건강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 (2007)의 연구에서도 위생, 맛, 영양과 건강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비행청소년들은 맛, 영양 그리고 위생의 순으로 음식을 선택해 일반학생과 차이를 나타냈다.

식이자기효능감은 각 문항별 4점 만점에 평균 2.51 ± 0.8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1998)의 연구에서 2.89점,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한 Kim(2000)의 연구에서 2.93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03)에서 3.20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wang(2007)의 연구에서 2.83점, 복지시설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eok(2007)의 연구에서 2.99점보다 훨씬 낮은 결과이다.

성별 총 식이자기효능감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Ha(2002)의 연구에서 남자 47.43점, 여자 51.19점으로 조사되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2003)의 연구에서 남자 48.7점, 여자 50.5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인 비행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총 식이자기효능감 평균 점수가 낮은 결과이며, 선행 연구의 일반청소년과 달리 비행청소년의 식이자기효능감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wang(2007)연구에서도 가정의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식이자기효능감은 유의적이 차이는 없었다.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03)의 연구에서는 학년, 성별, 아버지의 학력, 부모의 비만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어머니의 학력, 월평균 부모의 수입, 형제의 비만여부,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조사되었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들의 식행동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식생활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소년원의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사항, 식생활태도, 식이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남녀 빈도는 남자가 89명으로 42.4%, 여자가 121명으로 57.6%였으며,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41~50세가 각각 72.9%, 73.8%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고 부모의 결합 상태는 27.6%만이 결혼관계에 있었으며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53.8%로 소득 수준이 낮았다.

2. 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남녀 각각 172.20 cm, 160.89 cm였고 평균 체중은 남녀 각각 66.73 kg, 58.42 kg으로 나타났다으며 체질량 지수는 남녀 각각 22.46 kg/m<sup>2</sup>, 22.54 kg/m<sup>2</sup>로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

3. 식생활태도 점수는 남자가 68.92점, 여자가 66.45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식생활태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 $p < 0.05$ ). 영양지식 점수 수준이 높을수록, 식이자기효능감 점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수준의 식생활태도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4. 식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남자는 친구(30.4%) > 부모님(29.2%) > 급식(27.0%) > TV(11.2%) > 선생님(2.2%) 순이었으며, 여자는 급식(49.6%) > 친구(29.8%) > 부모님(10.7%) > TV(8.3%) > 선생님(1.7%) 순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급식은 전체의 40%로 그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의 평균소득이 낮고 부모의 결합 상태가 결혼관계에 있지 않을 때 그 비율이 높았다.

5. 식습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자의 경우 식사시간 불규칙(21.3%) > 편식(19.1%) > 결식(15.7%) > 자극적인 음식 선호(13.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는 폭식(37.2%) > 편식(24.0%) > 자극적인 음식 선호(15.7%)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1$ ).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식과 폭식의 비율이 낮았고 식사보다 많은 간식섭취, 불규칙적인 식사시간, 인스턴트식품 자주 섭취의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부모가 결혼관계에 있을 때 편식과 과식의 비율이 낮았다.

6. 식사의 목적을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유지'로 인식하는 비율이 남자가 34.8%, 여자가 18.2%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결혼관계인 경우에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유지'가 37.9%로 나타나 부모가 다른 관계일 때보다 높았다.

7. 식이자기효능감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식이자기효능감 점수의 항목 평균은 남자 2.60 ± 0.81점, 여자 2.50 ± 0.82점으로 일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보다 훨씬 낮은 결과였다. 식이 자기효능감 점수 수준은 영양지식과 식생활태도와 달리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며 영양지식과 식생활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식이 자기효능감 점수도 높았다 ( $p < 0.01$ ,  $p < 0.001$ ). 부모가 결혼관계인 경우에 식이효능감의 ' 좋음' 점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행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은 경제적, 구조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식생활태도의 점수는 차이가 있었으며 영양지식과 식이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

활태도의 점수도 높았다. 비행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식생활 태도와 식이자기효능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의 영양교육은 식이자기효능감을 개선시킬 수 있을 때 식생활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영양교육은 열악한 가정환경의 식생활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Ahn HS, Bai HS (2004): A survey of the weight control and intake pattern of the girl's high school student residing in Busan. *J Korean Soc Stud Obes* 13(2): 150-162
- Atkins FM (1988): Food allergy and behavior : definitions, mechanisms and review of the evidence. *Nur Rev* 44(suppl): 104-112
- Bandura A (1977): Self 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 84(2): 191-215.
- Choi HM, Park YS (2002): 21C Diet, pp 50-53, Kyohaksa, Seoul
- Choi SJ (1998): Dietary self-efficacy &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M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Ferguson HB, Stoddart C, Sineon JG (1988): Double-blind challenge studies of behavioral and cognitive effects of sucrose-aspartame ingestion in normal children. *Nutr Rev* 44: 144-150
- Gans DA, Haper AE, Bachorowski JA, Newman JP, Shrage ES, Taylor SL (1990): Sucrose and delinquency : oral sucrose tolerance test and nutritional assessment. *Pediatrics* 86(2): 254-262
- Gray GE (1987): Crime and Diet: Is there a relationship?. *World Rev Nutr Diet* 49: 52-58
- Ha BJ (2002): Effects of nutritional knowledge, dietary attitude and dietary self-efficacy on the nutritional statu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Kyoungsangnam-do. MS thesis. Gosin University
- Hwang JH (2007): A study on weight control, eating behaviors,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in Pusan. MS thesis. Inje University
- Jung BM, Choi IS (2003): A Study on obesity and food habit of adolescents in Yeosu, jeonnam area. *Korean J Community Nutr* 8(2): 129-137
- Jung SM (2002): A study of the nutrition knowledge, the eating attitude, and the eating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Busan. MS thesis. Dong-a University
- Kang MJ (2005): 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ang SJ (2007):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and dieticians' recognition on nutrition education. MS thesis. Andong National University
- Kim HA (2000): Influences of the parents' food habits and health beliefs on child obesity. M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HM (2007): Dietary behavior and recognition of dietary life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MS thesis. Kyonggi University
- Kim JY (2007): Changes of the dietary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nutrition education. MS thesis. Won-Kwang University
- Kim KN, Mo SM (1976): A study of children's dietary habits, focusing on parental Influences. *Korean J Nutr* 9(1): 25-42
- Kim SR (2003): Relationships among nutritional knowledge, eating behavior and dietary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chonbuk province. M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Kwon WJ, Chang KJ, Kim SK (2002): Comparison of nutrient intake, dietary behavior, perception of body image and iron nutritional status among female high students of urban and rural areas in Kyunggi-do. *Korean Nutr Soc* 35(1): 90-101
- Lee HJ (2001): Effects of dietary restraint, negative affect, and impulsivity on binge eating behavior. M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Lee HR (2007): Study on personality traits according to existence of structural broken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MS thesis Cheju National University
- Lee JS (2003): The effects of gender, obesity rate,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attitude on the dietary self-efficacy of adolescents. *Korean J Community Nutr* 8(5): 652-657
- Lee KS, Choi KS, Mo SM (1990): A study on obesity and food habit of adolescents in Yoesu, Jeonnam area. *Korean J Community Nutr* 8(2): 129-137
- Parcel GS, Edumnsion E, Perry LP, Henry AF (1995): Measurement of self-efficacy for diet-related behavior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Sch Health* 65(1): 23-27
- Park K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of healthy eating and dietary intake of middle school male students. MS thesis. Kukmin University
- Park MY (2000): Study on dietary life of juvenile delinquents in Korea. Government Youth Commission, Seoul
- Park SJ, Choi HM, Mo SM, Park MY (2003): Study on dietary practices of juvenile delinquents in Korea. *Korean J Community Nutr* 8(4): 512-525
- Rapoport JT (1988): Diet and Hyperactineity. *Nur Rev* 44: 58-61
- Seok HK (2007): The study of effect factor on self-rated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t child care center. *J Sport Leis Stud* 30(6): 537-545
- Seong MJ, Kim BR (1999): A study on the food habits and health-related behaviors of high school students in chunchon. *Korean Home Econ Educ Assoc* 13(3): 23-35
- Spear B (1996): Adolescent growth & development, Adolescent nutrition, assessment & management, pp. 1-24, Rickert Publisher, New York